

시-용현·학익 도시개발 시행사, 깊어가는 갈등에 피해는 시민들 몫



22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도시계획국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석 국장이 소관 현안사업 등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디씨알이(DCRE)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DCRE를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회를 2차례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는 DCRE 행정처분과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0월 처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청 기자회견에서 진행된 도시계획국

시, 시행사 10월 중 행정 처분 예고
“소음대책 마련 위한 압박 수단이다”

디씨알이 “협의·허가 절차 완료” 반박

기자 간담회에서 DCRE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업 준공시점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동석 국장은 “늦춰질 수도 있고 안 늦춰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국장은 이어 “딱히 행정처분을 하려고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소음저감시설 같은 환경적 문제를 좀 더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갈등의 핵심은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대책이다. 시는 행정처분이 소음대책 마련과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행정처분은 소음저감대책 마련의 압박수단인 것이다.

시와 DCRE의 갈등은 시가 2020년 6월 DCRE의 공동주택 1-1단지 건축신의를 통과 시키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DCRE의 42층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확인했다. 이후 미추홀구도 2020년 8월

1-1단지의 건설 승인을 내줬다. DCRE는 42층 공동주택을 같은해 12월 착공 후 2021년 6월 분양했다. 하지만 시는 올해 4월에서야 DCRE가 층고 변경 후 환경보전방안 재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고발 조치했다. 반면 DCRE는 관련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맞섰다.

DCRE는 지난 2020년 4월 도시개발사업 착공 이후 2021년 시티오씨엘 13·4단지 아파트 2536세대, 오피스텔 1238실, 상가 338실에 대한 분양·착공과 관련해 승인권자인 시와 미추홀구 등 유관기관과의 적법한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시의 말이 맞다면 DCRE가 행정처분을 받아야하지만, DCRE 말이 맞다면 그동안 착공·분양 과정에서 수십 차례의 협의와 인허가 절차가 모두 위법하다는 의미다.

한편 이 사안을 두고 경찰은 두 번 다 DCRE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DCRE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인천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고 도시개발법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시의회 또한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 갈등을 다루기로 했다.

인허가 과정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잘못을 가려야 하는 터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박소영 기자

“시, 닥터헬기 이전 대상지 주민 의견 수렴해야”

시 “소음 피해 용역 진행 우선” 입장
주민 공청회 등 구체적 계획은 없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유력 대상지 주민들이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 앞서 준비 중인 소음 피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부평구 일신동 505항공대대에 있는 닥터헬기를 이전하기 위해 이전 유력 후보지인 남동구 월레근린공원과 고잔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용역 대상지는 모두 남동구에 있다. 고잔공원은 주거지역과 멀지만, 월레공원은 연수구 연수2동 아파트 밀집지역과 가깝다. 약 450m 거리가 있다.

그래서 용역과 별개로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요구다.

현재 계류장이 있는 일신동 주민들은 계류장과 거주 거리가 가까워 소음 피해가 심하다며 꾸준히 이전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도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이 추진된다면 이전 대상지 주민 역시 같은 피해를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 유력 후보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아직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 피해가 있다면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사행 연수우성1차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닥터헬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결정은 있을 수 없다”며 “피해가 있다면 미리 알리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거나 소통해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전 대상지 주민에게 사안을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소음피해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음피해 용역은 올해 12월쯤 시작해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선희 기자



지난 21일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에서 UNDRR 주최로 열린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난복원력 있는 도시 인천'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시장, 인천시 '재난대응' 우수성 세계에 알렸다

첫 해외 출장서 '국제도시 인천' 재확인
싱가포르·호주 기업인과 의견 나누며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 구상 확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8기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에서 외교적 성과로 국제도시 인천을 재확인한 것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꼽았다.

시는 유 시장은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와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을 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재난관련 국제기구인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활동과 초일류 글로벌 도시 구체화를 위한 일정도 겸해 이뤄졌다.

유 시장은 이번 출장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참석과 연설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로 인증받은 인천시의 재난 대응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호주의 현지 기업인과 도시재생 사례를 접하면서 민선8기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 발전 방안을 구상했다”며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금융·무역 등 홍콩에서 나오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하는 금융허브 조성 방안,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호주의 달링 허버, 바랑가루 등 여러 도시재생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인천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 중심 사업 구도로 전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서 “인건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전략산업 다국적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 외연과 콘텐츠를 구성해 갈 수 있게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또 뉴홍콩시티와 영종도의 관광자원을 접목하고 개항장과 168개의 섬 등 성장 잠재력을 살려 세계적 유행에 맞는 핵심 콘텐츠와 추가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도 했다.

월드십 관광자원을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향상시키고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2025 APEC 인천 유치 홍보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 “인천 최초의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박소영 기자

우리말 하루 한 단어

◆ 저널(journal) → 언론, 학술지, 시보

(원문) 국회·중앙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국제 학술 저널 구독도 확대한다.
(고쳐 쓴 문장) 국회·중앙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국제 학술지 구독도 확대한다.

(원문) 한반도 문제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영문 저널이 발간됐다.
(고쳐 쓴 문장) 한반도 문제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영문 학술지가 발간됐다.

‘우리말 하루 한 단어’는 경기신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